

‘제2 리먼사태’ 경고등



이 정 혁
西村브리핑

16년 전의 기억은 씁쓸하기만 하다. 모든 것이 잘 돌아갔다. 2007년 당시 경제 상황은 나쁘지 않았다. 성장률 5.5%, 소비자물가 상승률 2.5%, 경상수지 118억 달러 흑자로 거시 경제 지표가 좋았다. 1인당 국민소득은 2만 달러를 넘어섰다. 종합주가지수는 처음으로 2000을 돌파했다. 원·달러 환율도 900원으로 하락(원화 가치 상승)했다.

하지만 2008년에 들어서면서 세계 경제가 아래로 미끄러지기 시작했다. 미국에서 신용등급이 낮은 저소득층의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신용 파생상품이 부실해진 것이 뇌관이 됐다. 금융기관의 부실 규모가 커지고 그 해 9월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으로 금융 위기가 본격화했다. 선진국 금융기관들이 자금을 회수하면서 금융 위기가 전 세계로 파급됐다. 실물 경제에도 영향을 미쳐 세계 무역량이 줄면서 전 세계가 동반 침체를 겪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직격탄을 맞았다. 물가가 오르고 내수는 침체됐다. 성장률은 2008년 2.8%, 소비자물가 상승률

은 4.7%였고, 경상수지 흑자는 32억 달러로 급감했다.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원·달러 환율이 11월 1500원을 넘었다. 2009년은 경제성장률이 0.7%였다.

2023년 세계 경제는 다시 위험 요인에 직면하고 있다. 2020년 이후 세계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 소비 침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식량과 가스 파동, 미·중 갈등, 공급망 재편 등이 겹치면서 침체를 지속해 왔다. 경기 부양을 위한 저금리 정책으로 물가가 급등하는 후유증을 치유하기 위해 각국이 긴축 정책을 펼치면서 세계 경제는 ‘온탕’과 ‘냉탕’을 오고 가는 중이다.

이런 와중에 이달 들어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에 이어 스위스에서 두 번째로 큰 은행인 크레디트스위스(CS)까지 쓰러지면서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SVB 파산은 코로나 위기 때의 초저금리에 힘입어 급등했던 채권 등 자산 가격이 미국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급락하면서 일어난 후폭풍이다. CS는 SVB 등 미국 지역은행 연쇄 폐쇄 여파로 주가가 폭락하자뱅크런이 발생하면서 파산 위기를 맞게 됐다. 스위스 최대은행 UBS가 인수하면서 급한 불은 꺾었지만 시장 불안 우려는 여전한 상태다.

국내 금융권도 술렁이고 있다. 고금리

로 인한 가계 부채 리스크와 부동산 급락, 경상수지 악화 등 가뜩이나 내수와 수출 모두 회복 사이클을 타지 못하고 있는 불안한 상황에서 SVB와 CS 사태가 터져 나왔으니 걱정이 클 만도 하다. 일각에서는 ‘제2의 리먼 사태 경고등’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어떻게 보면 거시 지표 상으로 한국 경제는 2008년 리먼 사태 이전 때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3년 한국 경제성장률은 1.6%에 그치고, 소비자물가는 3.6%로 전망했다. 올해 1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는 45억 2000만 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통계를 작성한 1980년 이후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이다. 1인당 국민소득도 지난해 3만 2661달러로 3만 5000달러에 못미쳤다. 원·달러 환율도 1310원대를 왔다갔다하고, 코스피 지수도 2400선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2008년의 세계 경제 위기는 주요 국가들이 힘을 합쳐 무역 개방과 재정·금융 정책 공조로 타개했다. 이제는 자국 우선주의와 미·중의 패권 경쟁으로 과거와 같은 국제 협력이 쉽지 않다. 독은 한번 무너지면 막기 어렵다. 금융당국이 다양한 시나리오를 그려놓고 치밀한 대응 전략을 짜둘 필요가 있다.

/ljnh@metroseoul.co.kr

한일관계 정상화



기 지 수 첩
박 정 익
(정치경제부)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제3자 변제’라는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결단함으로써 한일정상회담은 이뤄졌다. 양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12년 만에 서툰 외교 복원, 수출 규제 해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경제안보협의체 발족 등에 합의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일본 실무 방문으로 한일관계 개선과 발전의 중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대통령실이 일본 방문 성과를 연일 부각시키고 있음에도 국내 여론은 싸늘하기만 하다. 국민의 10명 중 6명은 이번 윤 대통령의 한일외교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

했다. 일본에 내준 것에 비해 성과는 미미하다는 게 국민적 공감대다.

한일정상회담 이후 오히려 일본 정치인들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문제를 비롯해 독도·위안부 문제 등 연일 한국의 국민 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외교당국을 통해 유감 표시와 재발 방지 요청을 했다고 밝힐 뿐, 들끓고 있는 국민의 마음을 진정시키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한일관계가 개선돼 양국 국민이 자유롭게 교류하며 사이좋은 이웃으로 지내는 것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다만,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 없이, 미래로 함께 나아가겠다는 말에는 동의할 수 없다. 실제로 일본은 한일정상회담 이후에도 과거사에 대한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보이지 않고 있다.

두 정상이 만나 ‘화합주’를 마시며 친교

의 시간을 가졌고, 일본 국민들이 윤 대통령에게 박수를 보내고 환영을 표했다는 것이 한일관계의 정상화를 뜻하지는 않을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일관계 개선에 대해 “결국 우리 국민에게 새로운 자긍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우리 국민과 기업들에게 커다란 혜택으로 보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국민은 35년간 일제 강점기를 지나, 한국전쟁으로 피폐해진 대한민국을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은 저력이 있다. 자긍심은 누구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 정부가 먼저 절반을 채웠다는 물건의 절반은 아직 비어 있다. 일본은 그 물건을 채우는 대신 후쿠시마산 수산물 등 청구서를 내밀었다. 오는 5월 방일에서는 윤 대통령이 일본의 더 성의 있는 후속 조치를 이끌어내길 바랄 뿐이다.

/pathfinder@

오늘의 운세3월 24일 (음 2월 3일)<http://www.saju4000.com>

 쥐

36년생 받았으면 반드시 베풀어야 한다. 48년생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한그루 사과 나무를 심자. 60년생 마음의 질을 높이는 일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72년생 돈으로 곤경에 빠진다. 84년생 남의 뒷말하지 않는 것도 작은 배려이다.

 소

37년생 재물이 많으면 좋다고 할 순 없지만 좋은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49년생 비단옷 입고 발길을 돌아다닌다. 61년생 관상 이전에 좋은 인상으로 길흉이 달라진다. 73년생 휴대폰 교환을. 85년생 키우는 반려동물 건강도 살펴보자.

 호랑이

38년생 포기하면 마음은 편하다. 50년생 동봉서주하니 이익이 늘어난다. 62년생 지혜가 부족해도 근면 성실로 극복이 된다. 74년생 물건은 새것이 좋고 사람은 옛사람이 좋은 법. 86년생 매대는 세무사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일을 추진.

 토끼

39년생 소중한 것을 나누고 싶다는 마음 자체가 상대에게 고통. 51년생 포장이 중요할 때. 63년생 정치적인 언쟁에 휘말리면 본전 찾기가. 75년생 새 술은 새 부대에. 87년생 운명은 노력에 따라 숙명적으로 정해진 처지를 바꿀 수.

 양

40년생 걱정거리가 없으면 치매속도가 더 빠르다는 의학적 소견. 52년생 내가 좋고 남들도 다 좋은 건 아닐 것. 64년생 나의 선택으로 결정. 76년생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덤비다 낭패. 88년생 겸손하게 하루를 보내자.

 뱀

41년생 편한 것이 마냥 좋은 것이 아닌데. 53년생 표현하지 않으니 상대가 모르고 지나간다. 65년생 인생은 마라톤이 아닌 장거리 긴긴 경주이다. 77년생 살다보면 양보 할일이 많이 발생하기도. 89년생 계획을 위해 묵묵하고 명상.

 말

42년생 두려움이 기도를 거치면 용기가 된다. 54년생 칠혹같이 캄캄해도 곧 새벽이 오겠다. 66년생 매력적인 이상의 유혹이 있는 날이니 중심을 잘 잡자. 78년생 진인사 대천명이니 최선을 다해라. 90년생 스트레스가 없다면 변화도 없다.

 고양이

43년생 큰일이라도 당한것 같은 표정은 하지말자. 55년생 불편함이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67년생 인생이 풀려 편안하게 사는 것만도 아니다. 79년생 백만송이 장미가 깔린 길을 걷는 기분. 91년생 흐르는 것은 흘러가게 놔둬라.

 원숭이

44년생 어려움을 비슷하게 거치며 살기마련. 56년생 부자 되세요 덕담은 시대와 세대를 가리지 않고 환영받는다. 68년생 명석이 깔렸으니 최선을 다해서 미뤄둔 일을 마무리. 80년생 작은 실수도 조심. 92년생 저축 시작하는 의미 있는 날.

 닭

45년생 세상살이에 곤란함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 했다. 57년생 인생은 새옹지마. 69년생 서류에서 좋은 결과가 있다. 81년생 노력하는 것은 숙명을 바꾸어 운명이 된다고 볼 수 있다. 93년생 결핍 있는 사람이 큰 성공을 거두기도 한다.

 돼지

46년생 활력 있는 삶이다. 58년생 마음은 청춘이나 몸이 따라 주지 않는다. 70년생 지혜가 생기고 오후 잘 풀린다. 82년생 절이 싫으면 종이 떠나라. 94년생 흥집을 데 없이 웃을 입으면 사람들은 대신 사람을 기억한다는 말이 어떤 뜻일지.

 돼지

47년생 한 잔의 커피가 여유를 준다. 59년생 바꿀 수 있는 요건을 받아들이니 선택 개선된다. 71년생 파란 하늘이 그림다. 83년생 자신이 옳다고 믿어도 너무 나대지 말도록. 95년생 때와 장소에 따라 갖춰 입은 옷이아말로 잘 입는 옷이다.

김상회의四季

토요일은 임오일



사슴과 말이 오후午火에 배당된 동물이다. 그러나 엄연히 다르다. 鹿은 천자天子를 상징한다. 그래서 천자의 자리를 중원지록中原之鹿이라 했다. 정권이나 지위를 얻기 위해 다툼을 이르는 말이 축록逐鹿이다. 까닭에 양중지양陽中之陽의 병화丙火는 사슴으로 비유한다. 진秦의 시황제始皇帝는 죽기 전에 장자 부소를 불러 장례식을 치르라는 조서詔書를 남겼다. 이는 후계자로 지명한다는 얘기다. 이때 환관조고는 조서를 위조하여 후궁의 소생인 호해를 황제로 만들었다.

조고는 호해를 허수아비로 만들고 승상인 이사를 처치한 다음 스스로 황제자리에서 오를 야심을 품는다. 그런데 조정의 대신들이 얼마나 자신을 지지할지가 문제였다. 어느 날 조고가 신하들 앞에서 호해에게 사슴 한 마리를 바치며 말을 헌상 한다고 했다. 그러자 호해가 농땡이 심하다며 지록위마指鹿爲馬라니... 했다. 조고는 정색을 하며 이것은 분명히 말이니 믿지 못하면 이 자리에 있는 대신들에게 물어보라고 했다. 조고를 두려워한 신하들은 말이 맞다 했고 더러는 사슴이라고 말했다.

조고는 사슴이라고 말한 대신들을 후에 가차 없이 죽였다. 그 이후에는 조정에 조고의 뜻을 거스르는 이들이 없게 됐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만들어 강압으로 인정하게 하거나 위사람을 농락하여 권세를 마음대로 휘두를 때를 가리켜 지록위마 이록위마以鹿爲馬라 한다. 이처럼 사슴과 말은 다른 동물이지만 같은 오후午火의 의수擬獸로는 다르지 않다. 회남자淮南子에 사슴을 쫓는 사람은 토끼를 돌아보지 않고 천금의 물건을 흥정하는 사람은 푼돈을 놓고 다투지 않는다. 즉 축록자 불고토逐鹿子不顧兔란 명이나 욕심에 사로잡혀서 사람의 도리를 저버리거나 눈앞의 위험을 돌보지 않는다는 비유한 말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154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150111	2017년3월09일 제1258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하루에 한 장 기적의 두뇌파를 사물라이스도쿠

손호성 저 | 스토쿠65 | 10,000원

문제풀이방법

4X3 스토쿠는 가로 세로 4X3박스에 1부터 9 ABC의 문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부동호 스토쿠는 가로 세로 3X3박스에 1부터 9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3				
		2				1		
	3	1	2		9	4	7	
7		3		9		8		
			3		7			
		4		1		9		7
	8	7	5		1	3	6	
		6				7		
			7					

	4		5		1			
		5				1		2
	6			7			8	
3			9		5		6	
4								9
	9			6				3
2		4				8		
			1		4		5	

정답

8	1	9	7	9	2	6	2	8
7	2	2	8	8	6	9	1	9
6	9	8	1	2	9	2	8	7
2	8	6	9	1	8	7	9	2
2	7	9	2	9	8	8	6	1
1	9	8	2	6	7	8	9	2
9	2	7	6	8	2	1	8	9
8	6	1	9	7	9	2	2	8
9	8	2	8	2	1	9	7	6

2	9	6	7	2	1	8	8	9
9	1	8	9	8	6	7	2	2
7	8	2	8	9	2	1	6	9
6	2	8	9	1	8	2	9	7
1	7	9	2	9	8	6	2	8
8	2	9	2	6	7	9	1	8
9	8	7	6	2	2	8	9	1
2	6	1	8	7	9	9	8	2
8	9	2	1	8	9	2	7	6

과·반도의 월드컵을 즐겨보세요

<http://argo9.com>